□종교사를 통한 여성의 지위변천과 현대적 대응

종교 속의 여성 이미지

김 종 서
〈서울대교수 종교학〉

천부님 지모님 하듯이, 고대 종교상징에서 보면 남성이 하늘이면 여성은 땅이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종종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그리고 남성이 씨앗이라면 여성은 터밭이요. 또 남근은 생기여서 농사는 곧 생식행위에 비유되어 왔다. 아뭏든 땅이 만물을 배태하듯이 여성은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 내므로, 이러한 여성의 생산능력은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로 여겨져 왔다. 요즘에야 허리가 가는 날씬한 여자가 미인이라지만 석기시대의 비너스상은 젖가슴과 배가 불쑥불쑥 튀어 나온 뚱뚱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 남성은 산, 여성은 물로 도려진다. 세계의 창조가 대체로 깊고도 어두운 물에서부터 시작되듯이 그렇게 깊고도 어둡게 느껴지는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인가보다. 또 중국의 도교는 물의 부드럽고 약하면서도 만물을 포용하는 속성이 여성적이라고 보아왔다.

하지만 햇님왕자와 달님공주에서처럼 남성은 해, 여성은 달로 상징화되기도 한다. 달이 정기적으로 차고 기울듯이 여성의 몸이 그렇게 부풀고 줄기 때문에 이렇게 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달과 여성의 정기적 변화가 바로 메시아 사상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함석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이다. 정기적으로 보름달은 반드시 다시 뜬다. 여성이기에 매달마다 못견디게 아픈 것도 마찬가지이다. 때만 지나면 쌍은 듯 나으니 참아낼 수가 있다. 고통은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로부터 구해줄 구세주가 오게 마련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종교상징의 원초적인 형식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늘 중심적이었고, 오히려 남성적 이미지 보다도 더 의미심장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시대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서양말로 역사란 '히스토리' 즉, '히즈 스토리'의 줄임말로 결국 남자들의 이야기이다. 거기서는 적어도 남성이 주인공이라면 여성은 그저 그 주변을 맴돌면서 수난을 참아내야 하는 엑스트라들인 셈이다.

고대 희랍 토로이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오디시우스는 크게 분노하였다. 집을 지키고 있던 여자 열두명이 모두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칼을 다시 빼서 오디시우스는 그들의 목을 가차없이 모조리 쳐 죽여 버린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도 무자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렇게 살인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소유물일 뿐이다. 그러니 그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구약성서도 역시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의 유산이다. 여자는 남자의 일부인 갈빗대로부터 창조되는 종속적 존재로 시작된다. 또 여성을 가문계승의 도구나 깨끗하지 못한 존재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그나마 여성을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하였다. 또 더 나아가 남녀평등에 가까운 선언을 하기도 한다.(남자나 여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3 : 28)하지만 결국에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해내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신약성서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여자라서.

중세 이후 기독교에서는 좀 뛰어난 영성을 지닌 여성 종교지도자들이면 대개 사회적으로 마녀라고 혀형을 당했다. 그러나 당시 종교재판소의 기록을 보면 "네가 마녀이냐"라고 질문되었을때, 오히려 이들은 "마녀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마녀라고 사냥되었던 종교지도자의 수는 무려 백만명을 넘는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러한 역사시대 여성의 수난 이야기는 동양종교에 있어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 불타의 전생은 다 남성적인 것만을 거쳐 온 셈이고, 여자승인 비구니가 되려면 지켜야 할 계율이 남자승인 비구에 비해서 왜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또 유교에서도 삼종지도라 하여 평생(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에 남자에 종속되는 삶이 강요되었고 그러면서도 막상 제사에서는 절 한번 못해보는 한심한 신세이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약과이다. 인도에서는 같이 살던 남자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순장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와 중동, 티벳 등에서는 어른으로 만들어 주는 상징적 제의로서 억지로 처녀막을 뚫어 버리거나 음핵을 잘라내는 등 진정 비인간적인 여성 할례가 강제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한국종교 가운데 나타나는 여성의 역사적 이미지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남자세상에 딸로 태어남은 출생 그자체가 주변에 처절한 한숨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던가. 일곱번째 딸로 태어나 버려졌던 바리공주가 아무 원망도 않고 자신을 내다 버렸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 시킨다는 처음에는 좀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염난 나사렛 예수 대신 가슴있는 여성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왔고, 성부·성자·성신 중 성신은 오래전부터 여성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종교에 있어서 여성적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일부 급진 강경파 여성들은 역사시대의 유산을 철저히 비판하며, 기존의 성서학 기독교 전통에서는 더이상 여성의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어차피 남성적으로 오염된 성서나 기독교에서는 아예 더 기대할 바가 없으므로 강력한 여성신을 새로 기억해 내고 발명해내자는 일종의 신흥 '여성교' 신봉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만의 성경', '여성만의 교회'도 좋지만 기존의 오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비교적 온건한 주장들도 있다. 역사는 남녀조화의 산물이어야 하고 다만 그동안 버려져온 역사 속의 여성적 원동력을 다시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구성에 참여한 여성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성서전통을 재건하고, 성서는 아직도 '돌이 아니라 빵'일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 어버이' 또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로 불려져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최근 서울 한 곳에 어느 여성 목사가 시작했다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제 버려졌던 하나님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냄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온 인간의 참 모습을 종교적으로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성 전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역사속의 왜곡된 신개념 바로잡아야

원초적 종교 상징은 여성이미지가 중심

세시봉

전채연 학술부장

시대정신과 자기성찰

유감스럽게도 매우 우려될 만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유럽의 대홍수, 미국의 폭풍, 우리나라의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가히 세계적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을 그저 우연의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현상을 천재지변으로 단정짓기를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눈 돌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뒤늦은 응징함 때문일는지도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성장위주의 기술중심적 산업발달에서 찾고 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 자부하던 것들이 오히려 인류와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조차도 지금까지의 자연파괴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 1년동안에 세계의 모든 자동차들이 내뿜는 프레온 가스만으로도 이미 2030년에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등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한편 이런 위기의식은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시 같은 예언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종말론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며칠전 텔레비전의 한 프로에서는 이런 예언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비롯한 중요한 사건들을 예외없이 맞추었다는 그들의 예언이 이번에도 적중할 것인가. 혼히 흥미있는 얘깃거리로 한번쯤 우리의 대화속에 끼어들었다가 이내 잊혀질 만한 이 화제가 지난 겨울의 여러 사건들에 의해 한귀로 듣고 흘리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 프로를 시청하면서 시청자들은 대체로 두가지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종말이 예고된 시기까지의 삶에 대해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부류와 회의적으로 보는 부류가 그것이다. 그러나 서로 상반된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닮은 점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단지 현실 자체만을 즐기거나 될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에 젖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런 의견들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천진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거나 종말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는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런 기상이변이나 거듭되는 천재를 현재까지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여겨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를 비춰 볼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정신의 부재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고 미래에의 희망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어느 조직이나 사회든지 자기 성찰 능력의 상실로 쇠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시대정신은 자기성찰을 토대로 얻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허한 자기성찰을 통한 의식의 전환 없이는 지구의 종말 이전에 인간사회의 멸망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학에세이①

임상일지

몸은 천냥 눈은 구백냥

이은경
〈경희의료원 안과〉

요즘들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 중·노년은 물론 젊은 학생층의 많은 수가 안경의 신세를 지고 있는 사실은 그만큼 시력이 나쁜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다.

안경은 우선 멋보다는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쓰지 않으면 눈에 해로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눈의 굴절이상에는 근시, 원시, 난시 등이 있다. 정상인은 눈이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도 외계에서 들어 온 광선이 사진기의 필름에 대항하는 눈속의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맺게 된다. 그러나 근시의 경우는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되는 눈으로,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만 먼 곳은 잘 보이지 않으며 가끔 눈을 찌푸리고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므로 오목렌즈의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다. 반대로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게 되면 원시라고 하는데 먼 곳은 보이나 가까운 곳이 잘 안보이며, 볼록렌즈로 교정하게 된다.

보통 4~6세경에 정상적인 시력이 1.0에 도달하나 이때는 이미 시력발달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즈음에 시력이상 유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간혹 치료시기를 넘겨 실명에 이르는 경우를 보면 처음 진료하는 의사와 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6세 전이나 아기가 가까이서 TV를 보거나 눈을 찡그리는 경우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하여 굴절이상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아나 유아들은 검사할 때 협조가 되지 않아 안과의사와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때는 눈에 약물을 넣어 검사해야 하며, 시력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간접적인 검사로 시력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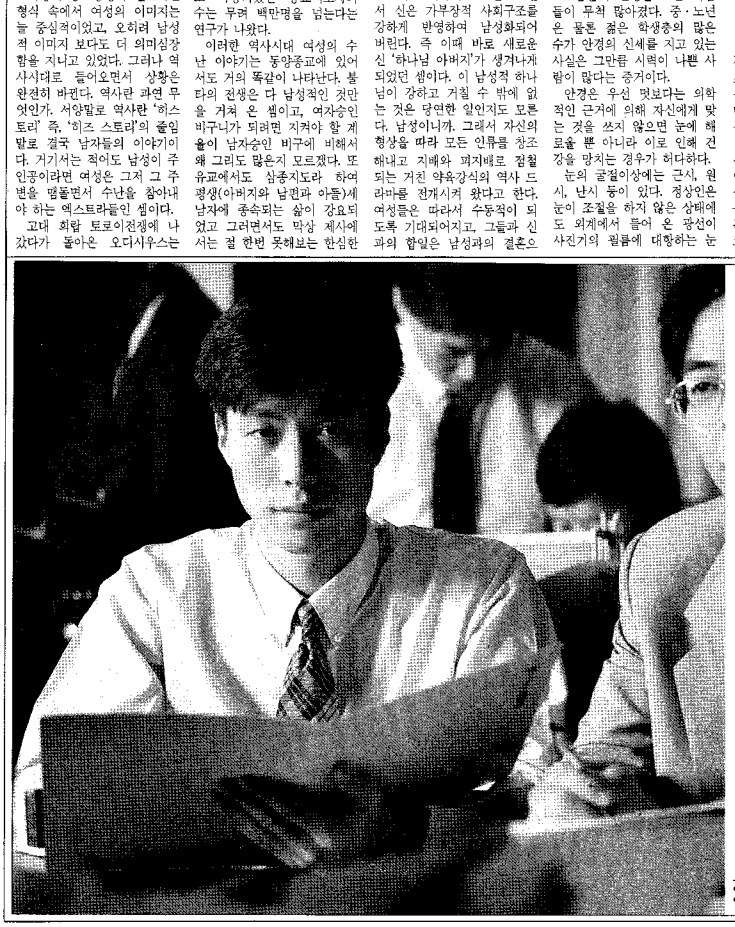
또한 요즘처럼 입시에 의한 과도한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가성근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원시안인데 과도한 독서 또는 근거리 작업으로 인하여 눈속에 있는 시력조절근이 근거리에만 조절하도록 굳어져서 경련을 일으킨 상태로서, 얼핏 보기엔 마치 근시가 있어 시력이 나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환자에게 오목렌즈의 근시안경을 끼워주면 시력이 정상으로 나아진듯이 보이나 몇주동안 독서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시력이 저절로 다시 좋아지며 근시안경이 오히려 맞지 않는 기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조절마비 후 굴절검사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근시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영영 근시로 고정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럴때는 안과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을 받아 치료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과의 여러 질환에 있어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은 나중에 감소하거나 아니면 굴절이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안경만 쓰고 진찰을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의 초기상태에 놓쳐서 눈이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안경만 쓰고 진찰을 하지 않는 경우 질병의 초기상태를 놓쳐서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안경을 착용하거나, 눈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쉽게 과곤하고 자극감, 시력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몸은 천냥이고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은 매우 중요하며, 이미 나빠진 눈은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눈을 평생 아끼고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여 눈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겠다.

적절한 안과처방 따라 안경껴야



인재를 찾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냅니다

추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수많은 과정들에 옥석을 가려내지만
때론 기업 스스로의 무관심이 애써 찾은 인재를 오히려 도태시켜 버립니다.
인재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삼양그룹의 신입사원은 사회인 입문을 위해 해외연수를 비롯,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자신의 적성 재발견을 도모합니다.
또한 2년차 이상의 사원들은 3개월간 현업에서 완전히 떠나 본인이 계획한
교육과정 (Future Leader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앞서갈
21세기 미래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신화협동의 제원에서 매년 (대학생 하계 어학연수 및 기업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89년부터 21회째 (전국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 (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에디케이 ●디엔 삼만 파이버 ●삼양그룹연구소 ●양영회 ●수양정하회

삼양그룹